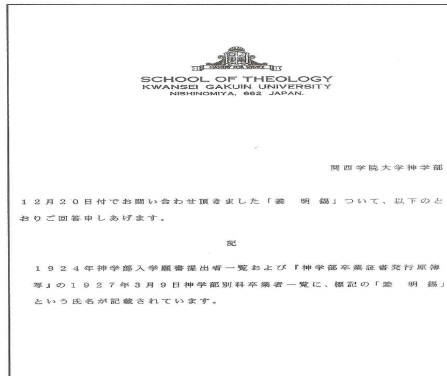


## 제6장 문창교회 분쟁 사건 목적

강명석 전도사는 1924년 4월에 일본 효고현(兵庫縣) 니시노미야시(西宮市)에 있는 미국 남 감리교회 계통의 간세이 가쿠인대학[Kwansei Gakuin College, 關西學院大學] 신학부(神學部)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3년만인 1927년 3월 9일(수) 졸업하였다. 강명석은 졸업한 즉시 귀국하였는데, 그는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부모님이 계시는 경남(慶南) 마산부(馬山府) 상남동(上南洞)[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88-2번지를 찾아 귀국 인사를 드렸다.



[간세이 가쿠인대학 졸업증명서, 환원역사연구소]

이때 강명석 전도사는 어머니 신재선이 전도부인

(여전도사)으로 사역했던 교회이고, 자신이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위더스(Wither) 여선교사의 어학 교사로 일하면서 출석했던 문창교회를 방문하였다가 분쟁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문창교회 분쟁 사건은 선교사 측과 조선인 목사 측으로 갈라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폭력적(暴力的)인 사건이었다. 이때 강명석은 『기독신보』에 「經濟思想(경제사상)의 變遷(변천)과 今日(금일)의 朝鮮教會(조선교회)」(1927.05.04.~1927.10.05.)라는 제목의 글을 13회에 걸쳐 연재(連載)하였는데, 13회 중 첫 번째 글에서 문창교회 분쟁 사건(紛爭事件)에 대하여 보고 느낀 점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당시 마산 최초 교회로 알려진 문창교회 혹은 마산 교회의 폭력적인 분쟁 사건은 『동아일보』(1926.10.23.~1927.12.3.)에 무려 31회나 기사화(記事化)가 되어 소개되므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분쟁 사건이다. 그로 인해 문창교회 분쟁 사건은 당시 기독교계는 물론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최대 관심사로 부각(浮刻)되었다. 또한, 조선기독교 역사 중 개교회 분쟁사(紛爭史)에서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대 분규사건(紛糾事件)이라는 슬픈 기록으로 한국교회사에 남게 되었다.

“「분규 중의 마산교회(문창교회) 예배 중에 또 유혈(流

血)』, 목사를 강단에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옷을 찢고, 서로 때려 피투성이가 되었고 경관(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했다. [『동아일보』(1927.2.13.) 예배당에서 교인들과 목사, 그리고 선교사와 격투(格鬪)가 벌어졌다. [『동아일보』(1927.2.20.)”

The clipping is from the Donga Ilbo, dated February 13, 1927. It features a large advertisement for the 'Seeds of the World' (세eds of the world) 100th anniversary celebration. The ad includes a tree illustration, the text '세eds of the world 100th anniversary', and a photo of a church service. The text is in Korean and English. The main headline is '세eds of the world 100th anniversary' (세eds of the world 100th anniversary). Below it, it says '演藝와音樂' (Performance and Music). To the right, there is a photo of a church service with the caption '마산교회의 예배' (Church Service at Masan). The ad also mentions '世界가協力해大規模로準備' (The world is cooperating to prepare on a large scale). The text is arranged in columns, with the main headline and photo on the right, and descriptive text on the left.

[『동아일보』(1927.2.13.), 분규 중의 마산교회 예배 중에 또 유희]

문창교회의 분쟁 사건은, 1926년 11월 담임목사 박승명(朴承明)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꾸며낸 여자와 관련된 스캔들[scandal, 추문(醜聞)]이 사실인 것처럼 교인들 입에 ‘간음 미수사건’으로 오르내리면서 시작되었다. [문창교회100년사 편찬위원회(2001), 『문창교회100년사』, 한국장로교출판사, 106.] 이때 조선예수교장로회 경남노

회(慶南老會)는 1927년 1월 4일(화) 이를 수습(收拾)하려고 박승명에게 ‘스캔들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인책사직(引責辭職) 권고’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박승명의 거짓 추문을 퍼트린 교인 윤덕이(尹德伊)와 이옥동(李玉東)의 치리 문제는 소속 교회인 문창교회 당회(堂會)에 맡기기로 하였다. [『동아일보』(1927.1.10.)]

그런데 문제는 1927년 1월 9일(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경남노회장 이자익[李姿益, 1882.~1961. 13, 33, 34회 총회장 역임] 목사가 “박승명 목사는 노회 직권(職權)으로 권고 사면(辭免)시켰다.”라고 광고한 것이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말았다. 이때 이자익의 광고에 분개한 교인들이 전교인 임시총회를 요구하였고, 저녁 예배 후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개회선언 후 교인 박판우(朴采禹)가 발언권을 얻어 ‘박승명 목사를 유임시켜야 하는 당위성(當爲性)과 노회 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조목조목(條目條目) 반박하며 차분하게 설명하였다. 그러자 당회장[堂會長, moderator of the session]인 매크레이 [Frederick John L. Macrae, 맹호은(孟皓恩), 1884.~1973.] 선교사가 고압적(高壓的)인 자세로 박판우의 발언을 제지(制止)하고 나섰다. 또한, 호신학교(濠信學校) 교장 알렌[Arthur W. Allen, 안란애(安蘭藹), 1876.~1932.] 선교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박승명 목사 유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박판우가 무지한 교인들을 선동하여 ‘박 목사 유임 운동’과 ‘노회 판결 불복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非難)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1927.1.14.)]

이에 분개한 교인들은 “이런 불손(不遜)한 발언은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선천적(先天的)으로 우월함을 타고났다는 인종관념인 백인우월주의[白人優越主義, white supremacy]에 사로잡혀 조선인을 인종차별(人種差別)하는 모욕적(侮辱的)인 발언으로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반기(反旗)를 들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일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와의 밀월관계까지 언급하며, ‘선교사배척운동[宣教師排斥運動, 반선교사운동]’까지 일어났던 사건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문창교회는 서양 선교사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치리교회로 운영한다.”라고 결의까지 하게 되었다. [『문창교회100년사』, 107. 당시 문창교회 최원직, 이기한, 최종완 등의 주동으로 장로회의 처리를 받지 않는 자치교회인 독립치리교회(獨立治理教會)로 결정하였다.]

선교사에 대한 반발의 뿌리는, 1905년 을사5조약 체결로 외교권이 강탈(強奪)당하고, 정미7조약 체결로 일제에 주권을 빼앗기고, 1910년 조일 병합조약체결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기독교계 인사들이 항일민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들 수 있다. 기독교계는 ‘근대적인 공화정(共和政) 설립과 외세를 물리친 후 자주독립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비밀결사(秘密結社) 단체인 신민회(新民會) 활동, 안중근[安重根, 1879.9.2.~1910.3.26.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0.16.~1909.10.26. 조선 통감] 암살사건, 항일경제운동, 삼일 만세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일제의 조작에 의한 105인 사건(百五人事件)과 삼일운동 사건으로 당황한 선교사들은 1901년 9월 천명(闡明)한 ‘교회의 비정치화 선언’을 구실로 일제와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교분리(政教分離)를 가장한 정교유착(政教癒着)이라는 선교정책을 펴서 일제의 비위를 맞추므로 선교 활동을 보장받는 양면성(兩面性)을 보여주었다. 결국, 선교 활동 보장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교인들의 정치참여와 민족운동을 ‘교리상으로 불순한 행위’로 규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유식 계층들과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축출(逐出)당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선교사들과 교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때 1925년 9월 15일(금) 안식일교회[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教會, Seventh-day Adventist Church] 선교사이며 평남(平南) 순안병원(順安病院) 원장이던 헤이스머[C.

A. Haysmer, 허시모(許時模)]가 자기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 먹은 김명섭(金明燮, 12세)의 얼굴에 염산(鹽酸)으로 ‘도적’이라고 쓴 인종차별적인 사건 즉 허시모 사건(許時模 事件)이 일어났다. 선교사들과 조선총독부의 밀월관계와 인종차별적인 허시모 사건으로 인해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들을 중심으로 한 ‘반기독교운동(反基督教運動)’까지 일어났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선교사배척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동아일보』(1926.7.3; 7.4; 7.6; 7.9; 7.16; 8.28; 11.26).]



[『동아일보』(1926.7.3), 허시모사건-평양검사활동]

강명석 전도사는 문창교회 교인들이 ‘서양 선교사 배척과 독립치리교회 운영’을 결의한 후에 매크레이 (Macrae) 선교사 측과 박승명 목사 측으로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꼴사나운 폭력사태를 목격한 것이다.

이때 강명석은 ‘어떻게 신성한 교회의 예배당에서 이런 폭력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해할 정도로 선교사들과 교인들의 행동이 막돼먹은 사람들 같았고, 사납고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폭력사태는 시끄럽고 떠들썩한 사건으로 신문에 발표된 것보다 몇 배나 더 심한 집단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다.’라고 다음과 같이 폭로(暴露)하였다.

“예배당이 변하여 격투장(格鬪場)이 되고, 남녀 구별 없이 신자들이 권투 하는 무리(권투선수)로 변한 사건이다. 불신자 중에서도 것처럼 도덕과 질서가 없고, 행동이 몹시 거칠고 사나우며, 여기저기에 오물(汚物)이 널려 있어 어지럽고 냄새나며 깨끗하지 못한 싸움터는 구경한 일이 없었는데, 문창교회 예배당에서 구경하게 되었다. 선교사와 목사들을 욕하고 때린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몇십 번, 몇백 번 함께 듣고 늘 만나는 교인들이었다. 그런데도 문창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선교사와 목사를 격렬(激烈)하게 때리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강명석(1927.5.4), 「經濟思想의 變遷과 今日의 朝鮮教會(1)」, 『기독신보』, 5.]

이때 강명석 전도사는 문창교회의 분쟁 사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개하지도 않았다. 또한,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직접 목격한 사실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도 않았다. 그는 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하여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방법에 관해서도 제시(提示)하였다.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사랑이 없기에 분쟁이 일어난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충실(忠實)하지 못하고(교회답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나 교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스럽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며, 불신영혼들을 구원하려는 희생의 마음이 적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충실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강명석, 「經濟思想의 變遷과 今日의 朝鮮教會(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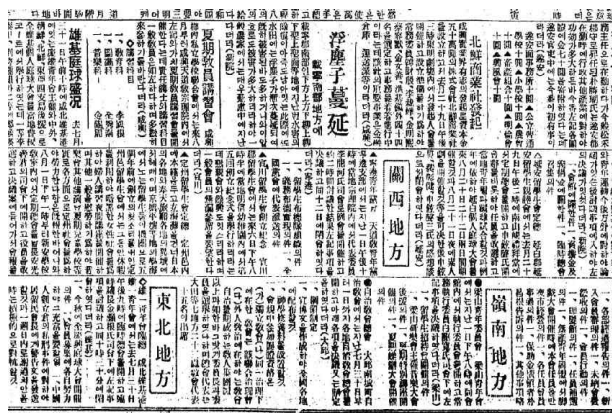
강명석 전도사가 소개한 분쟁 사건은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대 분쟁 사건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헌의안(獻議案)으로 채택하여 다룰 정도로 심각한 분쟁 사건이었다. 이 분쟁 사건은 무려 3년 동안 계속되다가 박승명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선교사들의 교권이 완강(頑強)함을 인정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탈퇴하였다. 그리고 1927년 11

월 27일(주일) 문창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온 200여 명의 교인과 함께 자치교회(自治教會) 즉 독립치리교회(獨立治理教會)인 ‘마산예수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므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교회는 1949년 6월 12일(주일)부터 마산중앙감리교회[馬山中央監理教會, 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9 (해운동), 기감]로 개칭하고 감리교회에 가입하였다. [마산중앙감리교회 연혁; 문창교회 연혁은 1927년 10월 29일 33명의 교인이 자치를 선언한 후 독립교회로 있다가 감리교회로 가입했다고 소개한다.]

이렇게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교회는 교파 신학에 근거한 교파 중심의 교권의식이 고착화(固着化)되어 갔다. 그러나 조선 교계는 선교사와 교회 간의 갈등, 교파 간의 갈등과 마찰, 사회주의 계열의 반 기독교운동, 진보주의 계열 교회의 보수주의 계열 교회 비판, 그리고 지방색 등이 두드러진 교권 분쟁의 징후(徵候)들이 나타났으나 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의 독선적인 운영과 백인우월주의적(白人優越主義的)인 편견으로 인하여 곳곳에 자치교회[自治教會, autonomy church] 즉 독립교회[獨立教會, independent church]가 설립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토양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최중진[崔重珍, 1870.~1940.] 목사는 1910년 1월

10일(월) 전북(全北) 정읍(井邑)에서 ‘대한예수교 자유교회(自由教會)’를 설립했다. 다음으로 김장호[金庄鎬, 1881.~?] 목사는 1918년 7월 18일(목) 황해도(黃海道) 봉산(鳳山)에서 ‘조선기독교교회(朝鮮基督教會)’를 설립했다. 또한, 이만집[李萬集, 1875.~1944.] 목사는 1923년 3월 18일(주일) 경북(慶北) 대구(大邱)에서 ‘조선예수교회’를 설립하였다. [『신한민보』(1913.9.26.; 1919.6.12.); 『동아일보』(1921.3.17.; 1921.6.13; 1921.10.18; 1923.3.13.); 『조선중앙일보』(1923.3.26.); 『대구YMCA 80년사』(1999.)] 그리고 마산 문창교회 박승명에 의해 1927년 11월 27일(주일) ‘마산예수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장로교회 출신이다.



[『동아일보』(1927.8.5), 자치교회총회- 영남지방]